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Since 1929.5.1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 Home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산상변화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분주하게 걷던 일상의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의 옷깃을 여민 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주님의 눈길을 피해 숨었던 첫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딘가에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제 정신이 들어 아버지의 집을 향했던 탕자처럼 두 손들고 주님께 나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 크신 은총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쉬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겨울 한 복판에 봄을 세우십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봄을 예비하는 나무들처럼, 삶이 힘겨울수록 더욱 주님의 희망으로 얼굴빛이 환해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59:21 …… 인도자

♠ 교 독 문 …… 52. 요일4장 …… 다함께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대표기도 …… Ⅰ. 한성건 선생 Ⅱ. 구성실 장로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362.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 다함께

성경봉독 …… Ⅰ. 골 4:2-18 …… 인도자
Ⅱ. 살후1:3-5, 11-12 장혜숙 권사

찬 양 …… 성가대

말 씀 …… **Ⅰ. 힘 되는 이름** …… 김재흥 목사
Ⅱ.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513.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사랑과 평화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그리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상처 입은 이들을 돌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생의 발자국마다 주님의 은총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평화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1남선교회 주최예배	성회 수요일/설날
말씀 : 김기석 목사	가족과 함께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한상익 권사

2월							
	영접위원	윤정덕	김준호	김 극	김필순	장혜숙	안경숙
	헌금위원	강인식	박창운	김용진	곽혜자	김명순	최숙화

▣ /믿/음/으/로/읽/는/글/

미(美)

얼마나 많은 남녀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쏟고 있는가? 그런 것에다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정당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온당치 못한 일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있어 잘못을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하려는 노력은 노력에 비해 결과가 대수롭지 않기 때문이다. 참된 아름다움은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며 정신 속에 태어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닮은 영혼은 그 아름다움의 빛을 사방으로 발산한다. 이는 사람들로부터 흠모받을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경치가 아름다울수록 앉아서 풍경을 감상하고 싶은 유혹은 강렬해진다. 그래서 자칫하면 길가는 건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육체의 아름다움은 영혼의 내적 아름다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누리고 있는 영혼의 내적 아름다움에로 향하게 하는 길로 있는 것이다. 도중에 중지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길을 떠났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입체적인 그림이 얼마나 장관인지를 안다. 그러나 이 그림을 평면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납작해서 볼품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이 된다.

우리가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서 정신의 차원을 떼어버리고 본다면 우리는 그의 아름다움의 진면목을 볼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란 정신의 외양으로 나타나는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한다. '그 사람 손을 보면 아주 난폭한 사람인 것 같아.' 혹은 구두쇠 같다느니 예술가 같다느니,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다느니 하고 말한다. 잔인하게 생겼다느니, 솔직하게 생겼다느니, 위선자 같다느니, 폐쇄적일 것 같다느니 개방적인 것 같다느니, 인정이 없어 보인다느니 하는 등의 말을 한다. 이런 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 각 부분, 얼굴이나 손 같은 것이 사람의 인격의 내면을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이런 외형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인격의 내면도 잘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자기 생각이나 정서나 내면적 생활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감출 수 없다. 영혼은 마치 예술적 천분이 창작 활동에 영감을 주고 손의 움직임을 지도하듯이 사람의 외모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당신의 외모는 내적 생활을 그대로 드러낸다. 후세에 우리의 부활한 육신은 정신의 내적 아름다움을 알알이 반영할 것이다. 어린이에게 아무리 누더기를 입혀 놓더라도 그 천진한 모습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노인의 아름다움에 크게 놀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얼굴은 주름지고 손의 까칠까칠해졌지만 영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육체적인 아름다움밖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장미꽃의 아름다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영혼의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당신의 시간이 도적질해 갈 수 없는 보화를 하늘에다 쌓는 것이다. 사과 속에 있는 벌레는 언젠가는 껍질을 뚫고 나올 것이며 안에서 썩은 것은 밖에까지 나타날 것이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악하다면 진리는 밖으로 나갈 것이다. 당신의 얼굴과 손은 속으로 병든 것을 드러내준다. 육체의 아름다움은 육체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유혹에 빠진 사람은 결국 실망과 불만족 속에 몸부림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악마는 이 아름다움을 유혹과 노예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결국에는 내적 평화를 단념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적 생활에도 고유한 아름다움들이 있다.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목표로 한다면 내적 평화와 마음의 순결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은총이 충만한 생활에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완연하지 않던가. 예를 들어 샤를 두 푸꼬같은 사람을 보라. 그의 추하기 짝이 없는 얼굴에도 영혼의 내적 아름다움이 빛났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뚜렷한 표지를 성인들의 몸에다 새겨 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특권은 성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있다면 당신의 표정은 그리스도의 표정이 될 것이다. 당신의 미소는 그리스도의 미소가 될 것이며 당신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얼굴이 될 것이다. 당신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자 한다면 거울 앞에는 1분을, 당신의 영혼 앞에는 5분을, 하나님 앞에는 15분을 앉아 있으라.
—미쉘 꽈스트, 『참 삶의 길』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성가대원 명단

성가대장 : 한상익
지 휘 자 : 윤주원
반 주 자 : 안홍숙, 최윤선
총　　무 : 조항범

소프라노(14명)
이은자 구명자 송양진 정영선 한선희 김윤정 정미경,
정현주 임수연 김명희 오현정 홍선희 김수연 정지은

앨토(6명)
정옥영 최윤희 최성애 윤수진 김재영 박시내

테너(6명)
안길상 한상익 김근종 임원민 이광섭 장재영

베이스(7명)
안종일 조항범 이한림 임종길 김창원 권혁순 최명동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재흥 최희영 박홍재 박옥식 박병선 방현복 방문성 박혜경 한상익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김종수 이순정 오진훈 노순옥 안종일 정현주
박애순 백승민 김용길 최영혜 배삼순 임 영 정경례 방 민 박홍엽
문홍일 이선림 김용원 김진경 송동준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안길상 이형숙 이지훈 윤성종 김윤정 이동천 황경순
왕수명 전영자 이병철 김현진 박상규 이호원 곽권희 권혁순 박범희
서재홍 박현우 조항범 오현정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인걸 문영혜 정복순 김연희 안성호 김용길 최영혜
이은자 왕성환 강순배 김종훈 안경숙 최인환 김수빈

생일감사헌금: 박두석 백승민 **구도헌금:** 김춘려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합속회	쉼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버나움	구 명 자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산상변화주일 :** 오늘은 주님의 산상변화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는 9일(성회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2. **속장 · 인도자모임 :** 예배 후 교육관에서 예비 공과 공부를 겸해 모입니다.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3. **교육부장회의**: 각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후 1시에 교회사무실에서 모입니다.
4. **오후집회 :** 제1남선교회 주최예배로 모입니다.
5. **성가대 임명 :** 오늘 성가대원으로 임명받는 분들은 일년 내내 거룩한 소명에 응답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6. **교사 임명 :** 다음 주일(13일)에는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합니다. 교회학교 학생을 비롯한 온 가족이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없습니다.
7. **설날 :** 설 연휴를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십시오. 수요 성경공부 모임은 쉽니다. 새벽기도회도 수요일과 목요일은 쉬겠습니다.
8. **취임 :** 장영숙 전도사님(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 졸업)을 심방 전도사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이신 양재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 소속목사로 오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9. **신앙실천 :** 그 동안 소원했던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 헌화 : 이봉옥 권사 (남편추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